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7월에 미 물가 2.7%로 변동 없다
- WSJ: 저소득 근로자 큰 폭 임금인상 시대는 끝났다
- WSJ: 미 소기업들, 관세 불구하고 낙관론 증가

[미국 금융]

- Bloomberg: 주가 상승세...오늘 물가 지표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무역전쟁]

- Bloomberg: 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추가 연장
- Bloomberg: 중국, 기업들에 “엔비디아 H20칩 구매 피하라” 촉구
- WSJ: 중국, 세계 최고 조선소 만든다

[오일]

- WSJ: OPEC, 2026년 원유 수요 전망 상향 조정...생산량 확대 지속

[주택]

- YahooFinance: 주택 인플레 주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 주요인

[자동차]

- WSJ: 차 구매자들, 현금 여유 구매력 탄탄하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AI 부작용으로 대면 면접 재도입
- AP News: 코닥, 사업 지속 능력에 '상당한 의심'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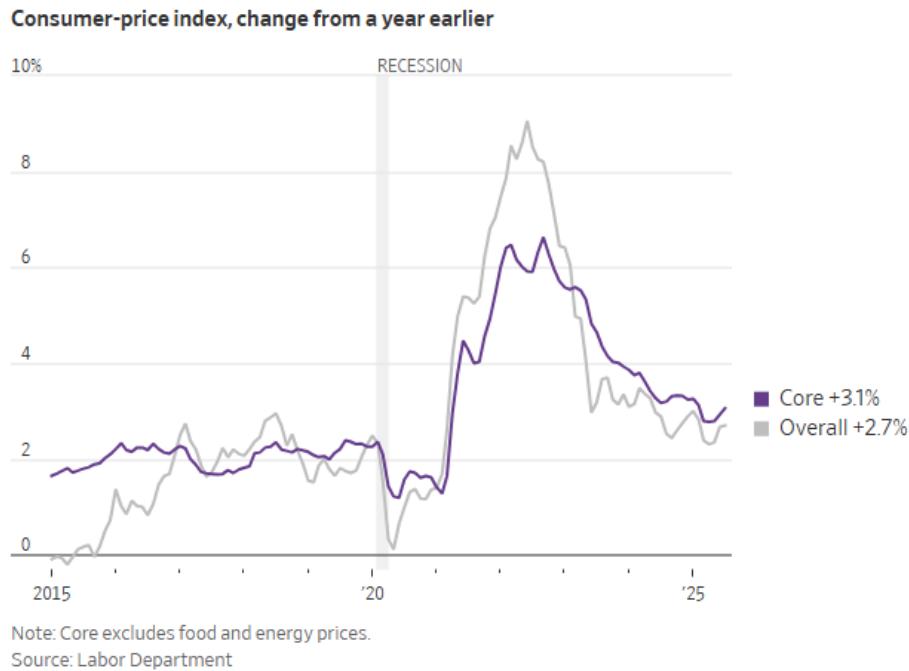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Inflation Held Steady at 2.7% in July 7월에 미 물가 2.7%로 변동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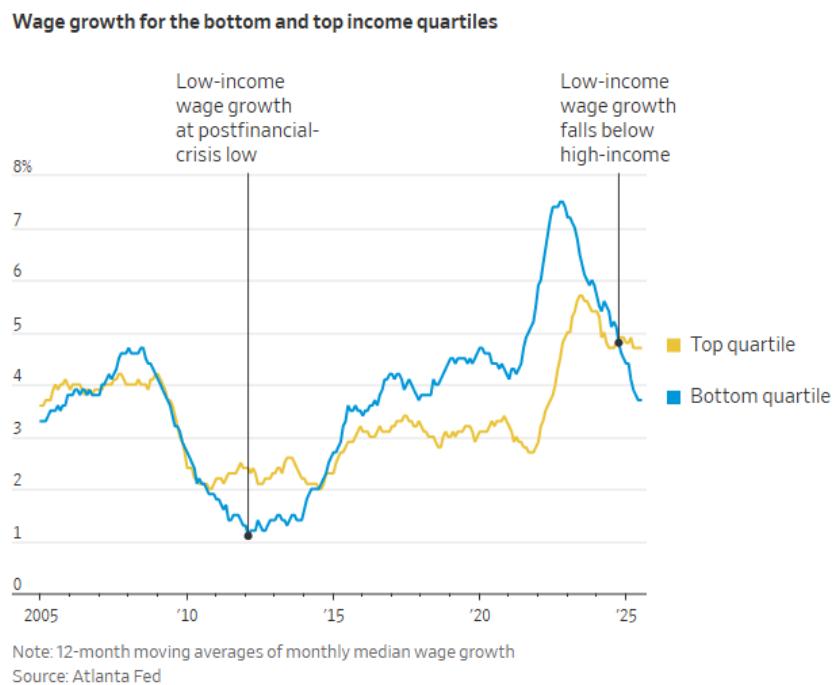
- 미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대비 2.7% 상승해 상승폭이 6월과 같았다. 또한,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그러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3.1% 상승해 기대치를 넘었다. 관세 부과 제품들은 가격이 상승했다.
- 현재 관세와 이민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 속에서 연준의 관세 인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WSJ 기사

WSJ: The Era of Big Raises for Low-Paid Workers Is Over 저소득 근로자 큰 폭 임금인상 시대는 끝났다

-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자의 임금 성장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가 서로 바뀐 상황이다.
- 노동시장은 냉각 상태이고 실업률은 4.2%로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봉급을 더 받기 위해 이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 저소득층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아 돈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WSJ 기사

WSJ: U.S. Small Businesses Brush Off Tariff Fears 미 소기업들, 관세 불구하고 낙관론 증가

- 미독립비즈니스연합(NFIB)에 따르면, 소기업들의 비즈니스 낙관 지수가 7월에 100.3으로 상승했다. 기대치를 넘은 것.
- 특히 이들은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됐고, 투자에 의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전체 응답자의 5분의 1 이상이 향후 6개월에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낙관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기업들은 불확실성과 노동의 질에 대해 우려하며, 판매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Rise and Bond Yields Fall After CPI Report 주가 상승세... 오늘 물가 지표로 금리를 인하 가능성 높아

- 오늘 발표된 물가지표로 인해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 주식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단기 국채 수익률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현재 S&P 500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 섹터들은 거의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오늘 오전 머니마켓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로 점치고 있다.
- 특히 즉각적인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3.75%에서 거래되고 있다.
- 한편 오늘 화요일 발표된 핵심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작년 대비 3.1% 올라섰다.

Bloomberg 기사

[무역전쟁]

Bloomberg: Trump Extends China Truce for 90 Days, Averting Tariff Hike 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추가 연장

-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해 종료기간이 11월 초에 끝나게 되어 양국의 무역은 일단 안정화 상황에 접어들었다.
- 트럼프는 오는 11월 10일로 관세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오늘 화요일 종료되는 무역 휴전 기간을 연장했다. 그는 “합의의 모든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All other elements of the Agreement”)
- 이 같은 연장으로 인해 현재 양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팬타뇰 밀수, 중국의 러시아산과 이란산 석유 구매 이슈 등 미 해결된 사안들을 논의할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 Urges Firms to Avoid Nvidia H20 Chips After Trump**Ends Ban****중국, 기업들에 “엔비디아 H20칩 구매 피하라” 촉구**

- 중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 반도체 구매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정보 용도의 반도체 구매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관련 소식통은 밝혔다.
- 중국 정부로 부터의 가이던스는 H20 반도체의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국가 안보용 업무 관련된 반도체를 회사들이 구매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는 중국 수출이 허용되기 시작했는데 중국정부가 이같은 해당 반도체 사용 제한을 권고하면서 중국 대체재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회사들은 엔비디아 H20이 인공지능 적용에 있어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를 선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China Creates World's No. 1 Shipbuilder, Driven by Rivalry With U.S.**중국, 세계 최고 조선소 만든다**

- 중국이 국영 조선소 두 곳을 합병해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가 탄생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조선업에 복귀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 이는 중국 최대 조선업체 중국국영조선(CSSC)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번 주에 합병 파트너 중국조선중공업을 흡수해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 합병된 회사는 규모를 확대해 비용을 절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또한, 이 합병을 통해 회사는 해군의 첨단 장비에 대한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한편, 미 해군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232배에 달하지만, 최근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의 항만세 부과 가능성으로 중국의 조선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WSJ 기사

[오늘]**WSJ: OPEC Lifts 2026 Oil Demand View as It Continues to Boost Output****OPEC, 2026년 원유 수요 전망 상향 조정...생산량 확대 지속**

- OPEC이 주요 지역의 경제 활동 강화로 인해 내년 석유 수요가 기존 128만 배럴에서 하루 138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브렌트유는 배럴당 66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배럴당 64달러를 웃돌았다. 무역전쟁 심화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 7월 OPEC의 전체 원유 생산량은 2,754만 배럴을 기록했다.
- 이달 초 OPEC+ 회원국들은 9월에 하루 54만 7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는데, 트레이더들은 이 추가 증산이 공급 과잉에 직면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SJ 기사

[주택]

YahooFinance: Housing inflation is easing, but it's still the biggest factor driving prices higher 주택 인플레 주도 불구, 여전히 물가 상승 주요인

- 주택 인플레가 예전처럼 빨리 상승하지는 않고 있지만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다.
- 임대와 호텔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용은 7월에 0.2% 상승했다. 이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걸친 인플레 0.2% 상승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
- 전체 주거비용은 작년에 비해 3.7% 증가했다.
- 임대료와 주거비용 환산 임대료(주택 소유자가 똑같은 주택을 임대할 시 지불해야 하는 금액)는 전월인 6월 대비)는 각각 0.3% 상승했다.
- 호텔비와 같이 주택 외에 숙박비는 1% 하락했다.

YahooFinance 기사

[자동차]

WSJ: Car Buyers Are Showing Up to Auto Lots With Cash to Spend 차 구매자들, 현금 여유 구매력 탄탄하다

- 소비자 경기가 둔화하고 자동차 가격이 몇 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자동차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 Chase Auto의 CEO Leslie Wims Morris는 인플레와 고용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계 재정은 건전하다고 말했다. 이는, 자동차 구매자들이 높은 차량 가격과 고금리를 헤쳐나갈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 중고차 판매의 약 3분의 1과 신차 판매의 약 5분의 1은 현금 구매자에게 판매되었는데, 이는 1년 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 한편, Morris는 높은 이자 비용보다는 자동차 가격 상승이 구매자의 예산에 가장 큰 부담을 미친다고 전했다.
- 현재까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구매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미국 운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으나, 향후 몇 달간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I Is Forcing the Return of the In-Person Job Interview AI 부작용으로 대면 면접 재도입

- AI 기반 부정행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Cisco와 McKinsey 등 기업들은 일부 채용 절차에 대면 면접을 재도입하고 있다.
- 많은 지원자들이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어떤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사기꾼들이 지원자를 사칭하여 채용 후 데이터나 돈을 훔치는 사례도 발생한다.
- 이로 인해 구직자들과 기업들 모두 채용 과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장 적합한 지원자조차도 채용 제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AI 기반 대출업체 Tomo는 이를 해결하고자 영상 인터뷰에서 속삭이는 소리나 응답 전 타이핑 소리 등 AI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하고 있다.
- 또한, 고용주들은 디지털 신원 조회 및 딥페이크 탐지 전문 서비스를 도입하며 구직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WSJ 기사

AP News: Kodak cautions there's 'substantial doubt' about its ability to stay in business 코닥, 사업 지속 능력에 '상당한 의심' 경고

- 코닥이 다가올 부채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업 지속 능력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
- 코닥은 규제 당국에 제출한 공시에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부채를 상환할 자금이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코닥은 작년에 부채 상황을 위해 퇴직 연금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 밝혔는데, 현재 12월까지 상환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코닥은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2년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 이에 따라 여러 사업과
- 특히를 매각하고 카메라 제조 사업부를 폐쇄한 바 있다.

AP News 기사

[보고서]

국제 금값 "금은 무관세" 트럼프 발언에 2.5%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11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 종가는 온스당 3천404.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5% 하락했다.

앞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8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1kg 골드바와 100온스(약 3.1kg) 골드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언론 보도에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